BARUN

정답과 해설

원서 해부 노트 정답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 Part 4 파이널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배점: 4·6·9·11·12·13번 각 6.0점, 나머지 10문항 각 5.4점(합 90점) / 서답형 10점(부분 점수 없음)

번호	정답	해설
1	③	186쪽 ¶5 저자의 결론 —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조건). ④는 '못지않게 그르다'와 반대.
2	②	179쪽 ¶1~¶2 — 가까운 나라의 안전한 캠프 → 밀입국 · 죽음이 사라지고 캠프에도 희망. ⑤는 국경 통제를 지킨다는 제안과 반대.
3	⑤	183쪽 ¶2~¶3 — 항공사 비유 → 10%의 위험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 ②는 오늘 멈춰도 10%라는 보고서와 반대.
4	②	178쪽 ¶4 — 2015년의 무제한 원칙과 달리 정치적 결과를 따져 국경 통제 강화에 동의. ④는 2015년의 말.
5	①	186쪽 첫 줄 — 3분의 1 = 여섯 칸에 두 발, 보통의 러시안룰렛(6분의 1)의 두 배. ③은 한 발일 때의 확률.
6	①	①은 개발도상국, ②~⑤는 부유국(낭비적 습관 · 탈탄소 · 석탄 발전소 · 새 탄광 허가).
7	②	177쪽 ¶2. ① 10만 명을 넘었다 ③ 21,000명 ④ 북아프리카 → 이탈리아 ⑤ 기록상 최고.
8	③	183쪽 ¶1 — 서약이 다 이행돼도 2030년 550억~600억 톤으로 늘어난다. 360억 톤은 2℃ 50%에 필요한 수준(⑤).
9	⑤	a treaty를 꾸미는 '대신할' → to replace. replaced는 과거분사면 목적어를 둘 수 없고 과거 동사면 could not deliver와 겹친다. ③ with + O + -ing.
10	④	(A) demand that + (should) 원형 → be (B) 동명사 주어 → 단수 was (C) has separated를 꾸미는 부사 → decisively.
11	④	외면하는 '동안' 제때 전환할 기회는 흘러가 버렸다 → arrived가 아니라 slipped by(passed). ⑤ below는 맞다.
12	②	아무도 예측 못 한 '혼자 서 있기' → 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 → 아직 발명되지 않은(원서: no one has yet tried). ⑤ 도로 봉쇄는 이미 내건 시민 불복종이라 also와 어긋남.
13	③	these countries가 ③ 앞의 나라 목록(폴란드 · 헝가리 등)을 받고, ③ 뒤 as they received the Ukrainians가 환영을 받는다. ② 앞에는 목록이 없다.
14	④	학교 파업 · 의제 · Extinction Rebellion의 흐름에 「The Refugee Dilemma」의 난민 협약(178쪽 ¶2)이 끼어들었다.
15	③	폴란드 → (B) 영국 · 트럼프, 2017 오스트리아 → (C) that same year 독일 → (A) 이탈리아 · Finally 오르반 · 이민의 역할.
16	①	코펜하겐과 달리 완전한 실패는 아님 → successful, 서약은 모자람 → insufficient. ② adequate는 1.5℃ · 2℃를 넘는다는 결론과 반대.
서답형	URGENCY	(1) U 890,000 (2) R Poland (3) G Rio de Janeiro (4) E 154 (5) N 6 million (6) C False (7) Y Sweden → U-R-G-E-N-C-Y(긴급함). 함정: A. 600,000 · H. Hungary · K. Copenhagen · D. 189 · I. 2 million · B. True · O. Morocco.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해 2,500명이 넘는 이주 희망자가 지중해에서 익사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건너가려던 중이었다. (독립분사구문(most of them + -ing))

→ More than 2,500 would-be migrants drowned in the Mediterranean that year, most of them attempting to cross from North Africa to Italy.

02 어떤 독일 지도자의 어떤 행동도 독일을 인종주의적 과거에서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떼어 놓지 못했다. (부정 주어 + 비교급 / distance A from B)

→ No act by any German leader has more decisively distanced Germany from its racist past.

03 그 아이들도 그 부모들도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Neither A nor B / 형용사구 후치)

→ Neither those children nor their parents will be able to claim asylum in the countries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

04 유럽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독일 의회에 말한 것은 이상주의자 메르켈이 아니라 정치적 현실주의자 메르켈이었다. (강조 구문 It is not A but B who)

→ It was not Merkel the idealist, but Merkel the political realist who told the German parliament that Europe faces many challenges.

05 무제한의 망명권 선언이 아무리 고무적이라 해도, 결국 권리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형용사 + as + S + V(양보))

→ Inspirational as the proclamation of an unlimited right to asylum may be, in the last resort, rights must have a limit.

06 재판소와 법원이 누가 진짜 난민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워졌다. (가주어 it / for + 의미상 주어 / 간접의문문)

→ It has become difficult for tribunals and courts to determine who is a genuine refugee.

07 지금 당장 배출을 멈춘다 해도, 우리가 2℃를 넘을 가능성은 이미 10%다. (even if + 가정법 과거 / stop + -ing)

→ We already have a 10% chance of exceeding 2°C, even if we stopped adding further emissions right now.

08 그 회사는 위험한 비행기가 날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prevent A from -ing / 과거완료)

→ The company could not claim that it had prevented dangerous planes from flying.

09 그녀의 도덕적 분노의 어조는 적절했고, 그녀 연설의 중심 주제도 그러했다. (as + V + S 도치)

→ Her tone of moral outrage was apt, as was the leitmotif of her speech.

10 그녀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빈말로 젊은이들의 꿈을 훔친다고 비난했다. (accuse A of -ing / the + 형용사)

→ She accused the world's leaders of stealing the dreams of the young with empty words.

11 정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영국의 인도 통치 못지않게 그르다. (no less A than B)

→ The failure of governmen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s no less wrong than British rule in India.

12 정부가 과학을 따르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이다. (would + if 현재 / persuade + O + to V)

→ Civil disobedience would be justified if it has a chance of persuading governments to follow the science.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2015년 7월 국경의 이주민 / 8월 한 주 그리스 / 지중해 익사	10만 명 넘게 / 21,000명 / 2,500명 넘게
시리아 난민이 훨씬 많이 간 세 나라 / 2014년 말 강제로 터전을 떠난 사람	튀르키예 · 레바논 · 요르단 / 5,950만 명(기록상 최고)
2015년 독일이 등록한 망명 신청자 / 18개월간 승인	89만 명 / 60만 건 넘게
메르켈의 유명한 말 / 1970년에 무릎 꿇은 지도자	Wir schaffen das / 빌리 브란트
메르켈의 선언 뒤 두 달도 안 돼 집권한 정당	폴란드 법과 정의당
2017년 독일 연방 선거 / 처음 의석을 얻어 제3당	기독교민주연합 8포인트 불리 / 독일을 위한 대안
난민 협약에 없는 두 종류의 난민	경제 난민 · 기후 변화 난민
2022년 2월 침공 뒤 2주 / 폴란드로 간 사람	200만 명 넘게 / 150만 명
1992년 지구 정상 회의 도시 / 서명국 수	리우데자네이루 / 189개국
2009년 회의 / 대신하지 못한 조약 / 자발적 서약	코펜하겐 / 교토 의정서 / 154개국
상한으로 정한 기온 상승 / 지금까지의 상승	2℃ / 0.8℃
그린란드 빙상이 다 녹으면 / 섬나라가 요구한 목표	해수면 7m 상승 / 1.5℃
지금 배출 / 2030년(서약 이행 시) / 2℃ 50%에 필요한 수준	500억 톤 / 550억~600억 톤 / 360억 톤
지금 멈춰도 2℃를 넘을 가능성(오스트레일리아 보고서)	10%
부유국 탈탄소 시한 / 축산업의 배출 순위	늦어도 2050년 / 둘째(수송 부문보다 앞)
미뤄진 회의의 도시 · 때 / 석탄 합의에서 바뀐 말	글래스고 · 2021년 11월 / phase out → phase down
툰베리 연설의 자리 · 때 / 시위 참가자(추산)	유엔 기후 행동 정상 회의 · 2019년 9월 / 약 600만 명
IPCC의 한도 / 지금 속도로 넘는 해	3,500억 톤(2050년까지) / 2028년
기후 변화 대응 지수 상위 셋 / 하위 5개국에 든 미국 외 네 나라	스웨덴 · 모로코 · 리투아니아 /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한국 · 대만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The Refugee Dilemma」에서 저자는 부유한 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을 그 나라가 져야 할 몫으로 보고, 많은 나라가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고 썼다(아래 문장). 「Greta Thunberg's Moment」에서는 지금 대기 중 CO2의 대부분을 누가 내보냈는가가 부유국의 계속된 높은 배출을 정당화할 수 없는 까닭이 되고, 「Paris and the Fate of the Earth」에서 저자는 개발도상국의 더 큰 필요를 들어 부유국이 먼저, 늦어도 2050년까지 탈탄소해야 한다고 본다. 빈칸에 들어갈 영어 명사 한 단어를 원서에서 찾아 쓰고, 그 근거를 「The Refugee Dilemma」 밖의 두 편에서 하나씩 찾아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부유한 나라가 지는 몫: Affluent countries have a _____ to take refugees, and many of them can and should accept more than they do.

빈칸: responsibility (179쪽 첫 줄 원문. duty · obligation은 뜻이 통하므로 부분 점수, responsible처럼 품사가 틀리면 감점)
근거 1 (예시): In 'Greta Thunberg's Moment', affluent countries are responsible for most of the CO2 now in the atmosphere, so there can be no ethical justification for their continuing to emit far more per person than people in low-income countries, who will suffer most from climate change.
근거 2 (예시): In 'Paris and the Fate of the Earth', the author agrees that developing countries' need for cheap energy to lift their people out of poverty is greater than rich countries' need to keep up their often wasteful energy use, so rich countries should decarbonize their economies by 2050 at the latest.
채점: 단어(responsibility) + 「The Refugee Dilemma」 밖의 두 편에서 근거를 하나씩 + 해당 편 어휘(affluent countries, CO2, Russian roulette, low-income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cheap energy, decarbonize, 2050 등) 포함. 근거 1은 'responsible for most of the CO2'(185쪽 ¶6), 근거 2는 저자가 든 까닭인 개발도상국의 더 큰 필요(183쪽 ¶4 That is why)와 맞물려야 한다. 182쪽 ¶4의 'industrialized countries that have produced most of the greenhouse gases'는 앞선 회의들이 구속력 있는 감축을 요구하려던 대상이고 그 전략은 폐기되었으므로, 저자의 논증처럼 쓰면 감점하고 앞선 회의의 전략임을 밝혀 쓸 때만 보조 근거로 인정. 「The Refugee Dilemma」 178쪽 ¶2의 'the countries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를 함께 짚으면 가산. 저자가 국경을 모두 열거나 망명권에 한계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쓰면 감점 – 저자는 결국 권리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178쪽 ¶4). 저자가 Extinction Rebellion의 도로 봉쇄를 지지했다고 쓰면 감점 – 저자는 그 운동을 소개했고, 시민 불복종에는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186쪽 ¶5). 이 문제는 저자의 논증을 정리하는 것이지 특정 정책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다.